

# 칠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5.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7
IV. 국제신인도 .....	10
V. 종합 의견 .....	13

## I. 일반개황

면적	756천 km <sup>2</sup>	G D P	2,470억 달러 (2016년)
인구	18.2백만 명 (2016년)	1 인 당 GDP	13,576 달러 (2016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Peso (Ps)
대외정책	실리주의	환율(달러당)	676.9 (2016년)

- 칠레는 남미 서남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3.4배 수준이며, 2016년 기준 인구는 18.2백만 명으로 중남미 제6위, GDP 규모는 2,470억 달러로 중남미 제6위 규모임.
- 칠레는 구리(매장량 세계 제1위), 리튬(1위), 몰리브덴(3위) 등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원자재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14년 출범한 바첼레트 (Bachelet) 정부는 의회 과반의석을 바탕으로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한 개혁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저성장 및 개혁성과 부진이 지속되고 2017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레임덕이 심화되는 등 정치적 입지가 약화됨.
- 빈부격차 문제가 지속되고, 교육개혁 등을 촉구하는 시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칠레는 OECD 회원국이자 중남미 국가 중 빈곤율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사회 안정이 유지되고 있음.
-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두 번째로 OECD에 가입한 국가이며,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의 창설국이자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준회원국으로 지역통합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sup>e</sup>	2017 <sup>f</sup>
경제성장률	4.0	2.0	2.3	1.6	1.7
재정수지 / GDP	-0.5	-1.5	-2.1	-2.9	-3.2
소비자물가상승률	1.9	4.4	4.3	3.8	2.8

자료: IMF.

#### □ 2017년 경제성장률 1%대 저성장 지속 전망

- 칠레 경제는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구리, 농산물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특히 광업은 GDP의 10%, 수출의 50%, FDI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칠레의 주요 성장동력임.

- 칠레는 2010년~2013년까지 연평균 5%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투자 감소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1~2% 대로 둔화되었음.

\* 연도별 경제성장률: 2010년 5.8% → 2011년 6.1% → 2012년 5.3% → 2013년 4.0%

- 칠레는 2016년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1.6% 성장에 그쳐, 2009년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1.6%) 이래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17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광업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소폭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나, 1% 후반대의 저성장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 재정수지 적자 확대 추세 지속

- 2013년 대선 실시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이후 국제 구리 가격 하락, 수출 축소에 따른 세수 감소와 정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음.

- 칠레는 2011년과 2012년 각각 1.4%, 0.7%의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한 바 있음.
- 2016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2.9% 수준으로, 2009년 4.2%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적자규모임.
- 2017년에는 국제 구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 증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3%대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비교적 안정적인 물가수준 유지

- 칠레 중앙은행은 3%±1%의 목표물가수준 설정을 통해 물가관리를 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물가상승률이 4% 내외 수준을 기록하여 목표물가수준을 다소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7년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가격 안정 등에 힘입어 물가상승률이 3% 이내 수준을 기록하여 정부의 목표물가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칠레 정부는 물가상승세 둔화 전망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해 2017년 1월 2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25bps 인하(3.50%→3.25%)한 데 이어, 2월 및 3월에 각각 25bps씩 추가 인하(3.25%→3.00%→2.75%)를 단행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원자재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칠레는 원자재(구리, 과일, 수산물 등)가 수출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원자재가 수출의 60% 이상, 특히 구리 등 광물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비교적 제조업이 덜 발달된 산업구조

- 칠레는 농업, 수산업, 광업(1차 산업)과 서비스업(3차 산업)으로 양극화된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 있음.
- 칠레는 GDP 중 제조업의 비중이 11% 내외 수준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공산품, 자본재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광물자원 풍부

- 칠레는 구리, 리튬, 몰리브덴 등 다양하고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이며, 이들 자원들이 지표면 가까이에 매장되어 되어 채산성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16년 기준 구리\* 매장량은 2.1억 톤(세계 비중 29.2%), 생산량은 5.7백만 톤(세계 비중 30.4%)으로 각각 세계 제1위이며, 리튬 매장량은 7.5백만 톤으로 세계 제1위, 생산량은 12,000톤으로 세계 제2위임.
- \* 칠레는 호주계 글로벌 기업 BHP Billiton 등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 구리광산인 Minera Escondida(칠레 구리 생산량의 25%를 차지)를 보유하고 있음.
- 몰리브덴의 매장량 (1.8백만 톤) 및 생산량(52,000톤)은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붕소, 은 등도 풍부함.

□ 교역, 농작물 재배,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지형학적 이점 보유

- 칠레는 4,000km를 넘는 해안선이 태평양 연안에 접해 있어 중남미 무역허브 역할을 담당하기에 적합하며, 긴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항구는 특히 아시아 진출 등에 용이함.
- 칠레의 국토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북부는 아열대성, 중부는 온대기후, 남부는 한냉기후 지역인바, 폭넓은 기후대의 영향으로 농작물과 산림분포가 매우 다양하고 농산물 재배가 연중 내내 가능함.
- 칠레는 포도 및 건포도 세계 제1위, 아보카도는 세계 제2위, 키위는 세계 제3위, 펄프는 세계 제4위 수출국임.

- 칠레는 북부 사막지대의 높은 일조량, 긴 해안선으로 인한 풍력 및 해양에너지, 130개가 넘는 화산으로 인한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자연 조건을 보유하고 있음.
- 칠레는 이러한 유리한 조건 활용과 에너지 구조 다각화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전체 에너지 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다. 정책성과

### □ 중남미 제3위의 해외직접투자 (FDI) 유치국

- 칠레는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 투명한 정부정책, 광업부문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속, 우수한 신용등급 등을 바탕으로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중남미 제3위의 FDI 유치국임.
- 2002년 25억 달러에 불과하던 FDI 유입액은 2012년 사상 최대인 285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2015년에는 20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EIU의 세계 주요 82개국에 대한 기업환경순위(Business Environment Rankings)에 따르면, 칠레는 2016년 세계 제20위(중남미 제1위)이며, 향후에는 세계 제17위(중남미 제1위)로 순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16년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인식지수에서 칠레의 순위는 24위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상위에 랭크되어 있음.
- 칠레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 수준의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는바, 이는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등급임.

### □ 적극적인 FTA 체결 추진

- 칠레는 EU(2003년), 미국(2004년), 한국(2004년), 중국(2006년), 일본(2007년) 등 60여 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전 세계에서 FTA를 가장 많이 체결한 국가 중 하나임.

- 칠레는 이들 FTA 체결국에 90%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등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sup>e</sup>	2017 <sup>f</sup>
경 상 수 지	-11,526	-4,501	-4,670	-3,574	-3,438
경 상 수 지 / G D P	-4.1	-1.7	-1.9	-1.4	-1.4
상 품 수 지	2,015	6,522	3,465	5,256	5,980
수 출	76,770	75,121	62,183	60,597	66,425
수 입	74,755	68,599	58,718	55,341	60,445
외 환 보 유 액	41,084	40,438	38,633	40,484	40,322
총 외 채 잔 액	133,037	150,617	156,924	160,563	162,993
총 외 채 잔 액 / G D P	47.8	57.7	64.7	65.0	60.5
D . S . R .	23.2	24.9	33.0	35.2	33.2

자료: IMF, EIU.

#### □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칠레는 원자재 의존형 수출구조에 따라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과 해외 기업들의 과실송금 등으로 인한 소득수지 적자규모에 의해 경상수지가 결정됨.
- 칠레는 상품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들의 과실송금, 외채 원리금 상환 등으로 매년 100억 달러 내외의 대규모 소득수지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경상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2016년에는 수입 축소에 기인한 상품수지 흑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2015년 대비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
- 2017년에도 소득수지 적자 지속 등의 영향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양호한 외환보유액 수준 유지

- 2015년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386억 달러를 기록하여 2014년 대비 축소되기도 하였으나, 2016년에는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됨.
- 칠레는 친시장 정책 지속 및 우수한 신용등급에 따른 꾸준한 FDI 유입과 해외 차입 증가 등에 힘입어 향후에도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월평균수입 대비 외환보유액은 8.8개월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칠레는 2016년 기준 경제사회안정화기금 (economic and social stabilization fund) 137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 단기 유동성 위기 발생 및 경기상황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 등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함.

□ 외채규모 증가추세 지속 예상

- 칠레는 재정·경상수지 적자 보전을 위해 부채가 확대되고, 폐소화 가치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외채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이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2017년에도 총외채잔액은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외채증가에 따라 상승하고 있으며, 2016년 35%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III. 정치·사회 동향

#### 1. 정치안정

□ 2017년 11월 대선 예정

- 중도좌파성향의 '신다수연합' (Nueva Mayoria) 바첼레트 (Bachelet) 후보가 2013년 대선에서 당선되어 2014년 3월 취임하였으며, 2013년 총선에서도 '신다수연합'이 의회 다수석을 차지하여 안정적인 정권의 기반을 마련함.



- 칠레 대통령은 임기 4년으로, 연임은 불가능하나 중임은 가능함. 바첼레트 대통령은 2006~2010년 대통령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17년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음.
- 2013년 11월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이 상원 38석 중 21석, 하원 120석 중 68석을 차지하면서 안정적인 정치적 기틀을 마련함.
- 바첼레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소득 불평등 해소와 복지 확충을 위해 교육, 노동, 세제 등 사회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여 왔음. 그러나 저성장, 소득 불평등, 개혁성과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레임덕이 심화되고 정치적 입지가 약화된 상태임.
- 2017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여론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지방선거(2016년 10월)에서 야당인 ‘함께 가는 칠레’(Chile Vamos)가 145개 시장직(득표율 38%)을, 여당은 140개(37%)를 차지한바, 민심이 야당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됨.
- 바첼레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2월 지지율은 23%에 그침.
- 현재 2017년 11월 대통령 선거 후보군 중에서 중도우파 성향을 가진 ‘함께 가는 칠레’(Chile Vamos)의 피네라 (Piñera) 전 대통령(2010~2014)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은 상황임.

## 2. 사회안정 (소요/사태)

### □ 빈곤율 감소 및 낮은 실업률 수준 유지

- 칠레의 빈곤율은 칠레 정부의 고용창출정책,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칠레의 빈곤율은 11.7%로 중남미 국가 중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칠레 빈곤율 추이: 2006년 29.1% → 2009년 25.3% → 2011년 22.2% → 2013년 14.4%

- 중남미 인근국인 콜롬비아의 빈곤율은 27.8%, 페루는 21.8%에 달함.
- 칠레의 실업률은 최근 수년간 다소 상승추세\*에 있긴 하나, 2016년 기준 6.5%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칠레 실업률 추이: 2010년 8.2% → 2012년 6.4% → 2014년 6.4% → 2016년 6.5%

#### □ 소득 불평등 및 사회 개혁 시위 지속

-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2014년 기준 0.465로 OECD 국가 평균인 0.31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OECD 국가 중 최하위임.
- 칠레 정부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사회개혁을 추진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바, 교육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하고 있음.
- 공교육 강화와 무상교육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바, 2016년에도 수도 산티아고에서 수천 명의 학생이 교육시스템 개선, 등록금 인하, 각종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요구하는 등의 시위가 발생하였음.

### 3. 국제관계

#### □ 적극적인 역내 지역통합기구 참여를 통한 경제협력 증진 노력 지속

- 칠레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의 창설국이자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준회원국으로 참여하여 역내 지역통합 강화와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태평양동맹은 2012년 결성되었으며,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4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임.
- 남미공동시장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브라질, 우루과이가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남미 5개국 관세동맹임.
- 칠레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TPP에서 미국이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칠레는 양자간 또는 지역간 협정을 통해 세계 시장 개방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음.
- TPP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15년 10월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으나, 2017년 1월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폐기 위기에 놓여 있음.

\*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멕시코, 페루, 칠레, 브루나이

- 칠레는 브루나이를 제외한 TPP 참여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는바, TPP 폐기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고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양자간 FTA 체결 적극 추진

- 칠레는 전 세계 64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칠레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세계 총 GDP의 86.3%, 전 세계 인구의 64.1%를 차지하고 있음.
- 칠레는 아시아 주요 경제대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향후 중남미와 아시아 지역 교류에 있어 허브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칠레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개국을 비롯하여 호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인도네시아와 FTA 협상을 진행중임.

□ 볼리비아와는 영토분쟁으로 갈등 지속

- 칠레는 태평양 전쟁(1879년~1884년)시 획득한 태평양 연안지역 영토에 대해 볼리비아와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
- 볼리비아는 상기 영토에 대한 접근권 등과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중재 소송을 진행중에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태도 양호

- 칠레는 OECD 회원국이자 AA- 수준의 우수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 2. 국제시장평가

### □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신용등급 유지

- 칠레는 국제신용평가 3개사로부터 AA- 또는 A+등급을 부여받고 있는 등 중남미에서 가장 우수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다만, Fitch(2016년 12월)와 S&P(2017년 1월)는 최근 저성장 지속, 재정수지 악화 등을 이유로 칠레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조정함.

### □ 해외차입능력 양호

- 칠레는 재정·경상수지 적자 보전 등을 위해 순조롭게 채권을 발행하고 있고, 필요시 자유로운 차입시장 접근이 가능한바, 해외차입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칠레는 2016년 26억 달러 규모의 유로화 및 미 달러화 표시채권(10년 만기)을 성공적으로 발행하는 등 투자자들은 칠레 국채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Moody's	Aa3 (2016. 7.)	Aa3 (2013.10.)
Fitch	A+ (2016.12)	A+ (2016. 5.)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62년 4월 18일 (북한과는 1972년 수교, 1973년 단교, 1992년 재개)

□ 주요협정(발효일)

- 무역협정(1978), 사증면제협정(1980), 항공협정(1980), 경제기술협력협정(1983), 문화협정(1984), 투자증진및보호협정(1999), 이중과세방지협약(2003), 자유무역협정(2004), 원자력평화이용협력협정(2006),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2008), 취업관광프로그램협정(2016)

□ 해외직접투자

- 우리나라의 對칠레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6년 말 누계 기준 총 74건, 4.4억 달러 수준임.
- 업종별로는 광업이 61.4%(2.7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제조업 (18.2%, 0.8억 달러), 도소매업 (13.6%, 0.6억 달러) 등의 순임.

□ 교역규모

- 우리나라-칠레간 FTA가 2004년 발효되어 칠레는 우리나라의 첫 FTA 체결국임.
- 2016년 기준 칠레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지역 제3위 수출대상국이자 제1위 수입대상국으로, 교역규모는 53억 달러 수준임.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석유제품, 합성수지 등이며, 수입품은 구리, 펄프, 농산물 등임.

<표 4> 한 · 칠레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주요품목
수 출	2,083	1,742	1,611	자동차, 석유제품, 합성수지 등
수 입	4,810	4,402	3,704	구리, 펄프, 농산물 등
교역규모	6,893	6,144	5,315	-

자료: 한국무역협회

## V. 종합의견

- 칠레는 2016년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1.6%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으며, 2017년에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1%대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수년간 달러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식료품 가격 인상 등으로 4% 내외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여 왔으나, 2017년에는 3% 이내 수준으로 둔화되어 정부의 목표물가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부터 국제 구리 가격 하락 및 수출 축소 등에 따른 세수 감소로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국제 구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수년간 경상수지는 GDP 대비 1%대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7년에도 유사한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13년 당선된 바첼레트 대통령은 의회 과반의석을 바탕으로 각종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 불황과 부진한 정책 이행 등에 대한 칠레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7년 11월 대선 예정으로 레임덕 심화 및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된 상태임.
- 칠레는 소득 불평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교육개혁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OECD 회원국으로서 전반적인 사회안정성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국제신용평가기관 AA- 또는 A+ 수준의 우수한 신용도, 양호한 외채상환 태도 및 해외차입능력 등을 감안 시 칠레에 대한 국제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선임조사역 박대원 (☎02-6255-5705)  
E-mail: parkdw@koreaexim.go.kr